

2010.04.12 미래정책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0.4.8~4.9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2010 KREI REPORT 연찬회」 사례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임.1)

□ **최근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동향**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대폭 상승
 - BSE(광우병), AI(조류독감),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질 등에 소비자 구매 기피현상 심각 → 산지 생산농가 피해 속출
 - FTA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 2008년 AI파동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량이 90%까지 감소 → 산지 생산구조가 무너질 수준까지 영향
- 다양한 먹거리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빈익빈 부익부 현상
 - 수입산 농수축산물 증가로 국내시장 경쟁 과열 → 돼지고기는 현재 약 20여개국에서 수입
 - 외국 거주 경험자 복귀 및 다양한 소비층 확대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수입 포함) 증가
 -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 역할 및 생산구조 변화 요구 → 균질한 품질 및 가격 상품 요구도 증가
- 웰빙/친환경 상품 소비 증가, 농산물 판매 경로 다양화 경향
 - 부유층 증가로 인한 웰빙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증가로 시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
 - 전단행사에 대한 고객 집객이 현저히 저하되는 추세이며, 이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가치있는 상품”을 요구

1) 신세계 이마트 서성원 구매팀장 발표자료 요약

- 다양한 판매채널(백화점, 할인점, SSM, 편의점, 쇼핑몰, 온라인) 확대에 따른 생산지에서의 판매채널별 상품기획 및 철저한 상품기획 강화 필요

□ **산지유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 Needs 및 다양한 구매욕구에 맞는 상품 공급체계가 필요한 시점
 - 가격경쟁력은 기본, 품질에 대한 요구 증가(균질한 품질 수준 요구)
 -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고객 요구도 증가: 신상품/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기획 상품
 -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품 선호
 - 가족당 1~2명 밖에 없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어, Kids Marketing 중요도 상승
- 생산에서 선별, 안전성 검사를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대형화, 시스템화 요구
 - 이를 위해 유통시장 대형화에 걸맞는 산지 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세계 이마트의 다양한 방안 강구
 - 1차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민감성 조사(5점 만점): 잔류농약 3.71, 중금속 3.92, 화학비료 3.54점으로 조사
 - 이에 대응해 신세계 상품과학 연구소에서 잔류농약 속성검사/정밀검사, 중금속 검사 실시, 위해성 질병(세균류) 검사
 -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애로사항 조사: 가공식품 인증 부재, 원재료에 대한 불신, 가공 과정의 위생 등에 대한 우려가 큼.
 - 이에 대응해 가공시설 평가를 통한 안전성 강화, 신규등록 업체 실

사, 고객의 소리 등 기업의 무한책임 강화

- 최근의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5대 키워드: 웰빙, 스마트 소비, 안전 지향, 간편지향, 양극화
 - 웰빙: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스마트 소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을 통한 현명한 구매
 - 안전 지향: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고조
 - 간편 지향: 바쁜 현대인들의 편의에 대한 니즈 증대
 - 양극화: 저가 아님녀 프리미엄의 소비 양극화 현상 심화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상품 구매 시 상품의 내외적 요인 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브랜드, 원산지, 기능성, 마케팅
 - 브랜드: 브랜드 선명성 부각을 통해 친환경 신뢰성 강화
 - 원산지: 원산지 신뢰 극대화를 위해 상품이력관리시스템 도입, 해외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 증가
 - 기능성: 상품 영양성분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활용, 건강 관리 정보와 연계된 상품 전개 및 설명
 - 마케팅: 상품 알리기가 상당히 중요(소비자 동향), 요리 강좌, 체험코스 등 강화
- 향후 농산물 생산 및 가공이 가야할 3단계별 발전방안 제안
 - 1단계: 상품의 브랜드 키우기(품질 및 안전성 확보 통해 신뢰도 향상)
 - 2단계: 판매장소를 확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 3단계: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도 팔자.

□ 유통업체와의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대형화, 시스템화된 산지유통시설(APC) 출하상품의 적극적 홍보 중요
 - 각 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도매시장 등)에 적극적 산지 상

품 출하정보 제공

- 월별/주간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산지동향 지속적 피드백 채널 구축을 통해 사전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도
- 체계적 생산 및 출하계획 수립, 저장 노하우 축적 및 소비자 시장 마케팅 강화
- 주문형 상품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소비가 생산을 리드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생산구조를 계약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계약생산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지속적 성장 가능 농업으로 전환 필요
 - 소비자가 원하는 주문형 상품개발 및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판매) 필요
- 유통혁명 시대 도래에 대비한 농식품 유통혁명 필요
 - 다양한 정보 가공능력 향상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구축(생산 및 판매 데이터 구축)
 -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의 정확한 Needs 파악이 중요
 - 소비자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화 및 적극적 마케팅으로 상품에 대한 효율적 운영 가능

주간농업·농촌동향 **신원경 안전농산물 생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0.4.8~4.9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2010 KREI REPORT 연찬회」 사례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임.²⁾

명품 유기농산물

○ 명품 농산물이란 먹거리의 기능, 품질, 안전 등을 초월하여 고객에게 높은 품격을 느끼도록, 단순히 비싸고 기능이 우수함을 뛰어넘어 품질과 서비스를 만족시키되 가치와 철학이 담긴 농축산물

○ 최근 식품의 소비 트렌드는 식량 수급의 질적 변화로 인해 안전성/기능의 고부가가치 추구,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저투입/유기농업으로 전환됨. 5년 후 웰빙의 다음 화두는 “명품”일 것으로 전망됨.

- 먹거리 차별화 시대에 고품격·안전 농축산물 명품화 시급

○ 명품 농산물은 유기농업, GAP, HACCP(안전)에 기능성과 고품질을 더한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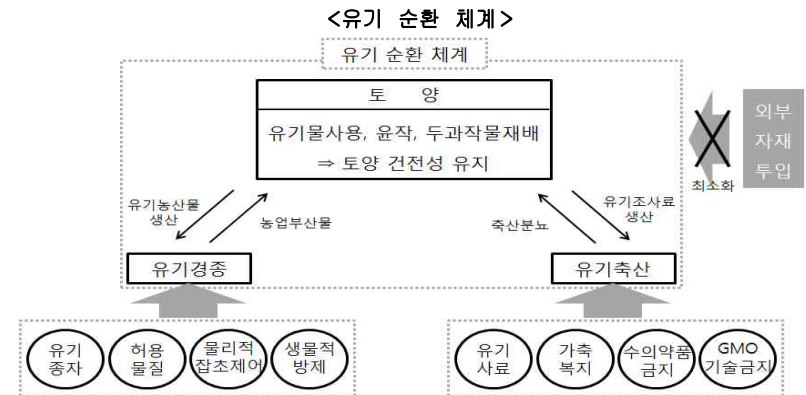
- 명품 쌀: 탐라이스(단백질 6.5% 이하, 완전미 95%이상)
- 명품 사과: 탐푸르트(당도14Bx 이상, 320g±10%, 착색도 7,80%이상)
- 명품 배: 탐푸르트(당도12.5Bx 이상, 700g±10%, 칼라차트 7이상)

안전한 명품 유기농산물 생산 핵심기술: 녹비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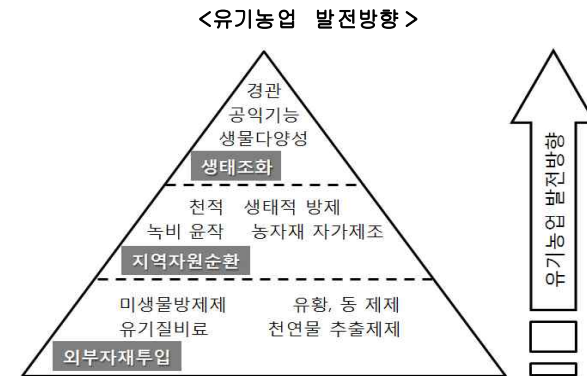
○ 농작물 생산에서 인위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순환체계 하에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하며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아가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유지·보전하는 농업으로 개념의 재정립 필요

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최경주 과장의 발표자료 요약

- 외부 자재 투입 최소화를 통한 유기 순환 체계 수립 필요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물, 미생물 등 물리적, 미생물적으로 제조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임. 이를 통해 생물학적 순환 및 생물다양성 유지, 건강한 농업생태계 보존이 가능함.



- 유기농업은 무농약, 무화학비료에 그치지 않고 환경, 생태 조화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녹비재배기술이 가장 바람직함.



○ 국내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병해충 방제 31.3%, 잡초방제 15.6%, 그 외 윤작체계 미확립, 경축순환 미수립, 가축분 과잉시비, 생물농법 의존, 표준기술 미확립, 투입농자재 의존 등으로 나타남.

- 녹비재배를 통해 윤작체계, 과잉시비, 병해충 방제 등의 문제 해결

○ 양질의 유기물 확보가 어려워 유기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의 경영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유기농업을 하면서 논에서 벧짚을 걷어내는 일은 자연순환 고리의 단절을 가져옴. 따라서 손쉬운 녹비작물재배를 통해 양질의 유기물을 공급하면 경영비도 절감 가능함.

- 두과 작물: 클로버, 자운영 헤어리베치, 알팔파 등이 있음. 유기농업에서 염류집적을 회피하면서 공중질소 고정, 탄질율이 현저히 적고 분해가 빨라 양분을 후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화본과 작물: 옥수수, 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등이 있으며, 양분흡수 능력이 뛰어나 과잉염류에 대한 토양양분 조절에 유효함. 또한 환원 가능한 유기물이 많아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 및 물리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대표적 타감작물로서 잡초의 발아를 억제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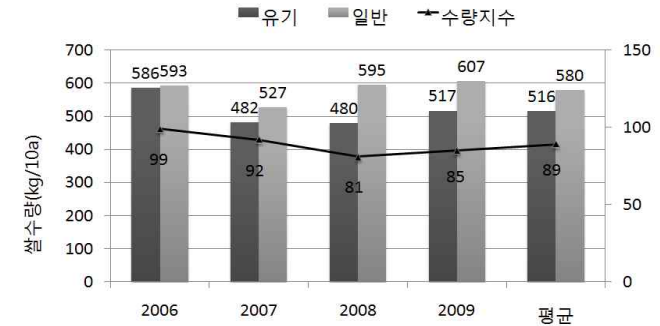
○ 녹비작물이란, 토양을 비옥화하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로, 퇴비와 같이 부속하지 않고 흙에 갈아엎는 작물을 뜻함.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질소, 인산, 칼리 등 다량원소와 망간, 아연, 붕소 등 미량원소 공급, 미생물의 활동 활성화 및 종류 다양화, 토양수분 조절 기능,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한 공중질소 고정, 화학비료의 사용절감 효과, 화학비료 및 제초제 절감 효과, 피복 및 초생재배로 토양유실 방지, 농촌 경관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과 농외소득 창출 등

○ 벼농사에 적합한 녹비작물로는 자운영, 헤어리베치, 크립스클로버 등이 있음. 유기재배 실천연수에 따른 수량성 변이 추이를 연구한 결과, 3년 이후 지력이 회복되며 관행재배와의 수량 차가 감소하였음.

- 수량지수는 재배기간 경과에 따라 일반재배 대비 각각 1, 8, 19, 15% 적고, 4년 평균 11% 감소

<유기재배 실천연수에 따른 수량성 변이 추이>



주) 수량지수: 관행재배 대비 유기재배의 수량 비율

○ 이밖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에 녹비재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 경남 생명환경농업 사례: 녹비재배, 토착미생물에 의한 토양가꾸기, 친체녹즙 등 자가제조 친환경영양제 사용 등을 통해 관행재배의 80% 이상 수량을 내고 있으며, 녹비재배를 유기농업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서 보급

- 일본의 벼 동기담수 무경운 재배 사례: 실지렁이 분변을 이용하여 벼 재배, 배설물 층이 풀의 씨를 덮어 잡초 번식 억제, 자연재배 경과년수(토양순수화 정도)에 따라 쌀 가격 차별화 실현을 통해 관행 대비 2배 이상의 주수입 실현

- 그 외 녹비용 맥류 뒷그루 콩 무경운 유기재배(미국), 겨울철 보리재배 후 시설고추 무경운 유기재배(전남농업기술원), 기적의 사과 사례(일본), 전남 장성 남면 전춘섭농가 사례 등 소개

○ 친환경농업 토양관리를 위해 농약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분류를 개선하고, 토양 순수화 년수에 따른 지원 및 가격 차별화를 반영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함.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